【논 문】

‘개척’·‘근대’·‘식민’의 중첩적 表象: 만주 광공업도시의 형성, 삶, 민족관계*

—撫順市의 사례를 중심으로—

윤 휘 탁**

차 례

Ⅰ. 서론
Ⅱ. 무순탄광의 식민지적 침탈
Ⅲ. 무순시의 형성과 근대적 변모
Ⅳ. 무순시의 인구와 삶
Ⅴ. 무순탄광의 처우와 민족관계
Ⅵ. 결론

국문초록

러시아와 일본은 군사적으로 무순광구를 점령한 뒤 효율적인 광산 운영체계와 근대적인 채굴 기계, 운송 기계들을 도입해 석탄생산량을 늘려갔다. 이 과정에서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자, 무순탄광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각종 주거시설, 공장, 상점, 위락시설 등이 생겨났다. 특히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무순탄광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제방 시설, 철도, 도로, 교량 등을 부설했다. 또한 발전소, 급수 시설, 가스 공장 등을 건설해 전기, 수도, 가스를 보급했고 전염병 예방과 위생사업도 실시했다. 근대적인 학교, 병원, 공원, 공연장, 여관, 은행, 우편국, 전신전화국, 도서관, 이발소, 공동묘지, 화장장 등 근대문명 시설들도 만들었다. 무순시는 러시아와 일본의 점령을 계기로 근대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시가지에 거주한 반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1044198).

** 국립 한경대학교 교수.

www.kci.go.kr

에, 일본인들은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각종 근대문명 시설이 갖추어진 신시가지에 거주했다. 무순탄광은 근대적인 시설들로 채워졌지만 노무체계나 작업환경은 낙후되었고 민족차별이 심했다. 직업이 안정되고 급여가 높은 고위직은 일본인이 독차지했다. 반면에 중국인 노동자 대다수는 임금이 적고 직업이 불안정한 임시직이었거나 작업과정이 위험한 채탄노동자로 일했다. 무순탄광 갱내 안전시설은 낙후되어 중국인 채탄부의 사망사고가 빈발했고 부상자도 속출했다. 동일한 직급이라고 해도 중국인의 임금은 일본인보다 훨씬 적었다. 게다가 각종 수당이나 처우에서도 일본인과 중국인 사이에는 차별이 심했다. 근대적인 병원시설이 갖추어졌지만 입원 및 외래환자 대다수는 일본인이었다. 중국인들은 근대적인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었다.

무순시는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적 점령을 계기로 '개척성'과 '근대성'을 띠었지만 '식민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무순시는 '식민지적 근대화'와 '식민지적 수탈'이 중첩된 근대 광업도시였다.

주제어: 무순(撫順), 무순탄광, 개척, 근대, 식민, 러시아, 일본, 민족차별, 남만주철도주식회사

Ⅰ. 서론

동아시아, 특히 제국주의의 침탈을 받은 한반도와 만주에서의 제국주의사 연구의 관점과 평가는 크게 '식민지 근대화론'과 '식민지 수탈론'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전자는 오리엔탈리즘에 경도되어 있는 서구학계나 제국주의적 침탈을 자행한 국가에서 많이 주창되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제국주의적 식민통치를 경험한 국가나 지역에서 주류적 학문경향을 띠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제국주의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관련해 양자의 관점 사이에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그것의 실마리는 20세기 전후 영국, 러시아, 일본의 군사적 점령과 개발, 이주를 계기로

www.kci.go.kr

근대도시로 변모한 만주의 도시사례들, 가령 제국주의적 침탈을 계기로 근대 항구도시로 변모한 大連, 營口, 安東, 광공업도시로 변모한 撫順, 鞍山, 本溪, 러시아인을 비롯한 서양인의 대규모 이주에 따라 근대도시로 변모한 하얼빈(哈爾濱), 만주국 수립을 계기로 수도로서 근대 도회지로 변모한 新京 등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도시들의 개항과 개발을 통해 근대도시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유입·형성된 근대문명 시설, 사회관계, 각 민족의 구성과 위상, 역학관계, 그리고 식민지적 통치행태 속에서 배태된 민족차별과 불평등의 실태 등을 통해 근대성과 식민지성을 들여다보면서 '근대'와 '수탈'의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만주의 이 도시들은 '개척(개발)'·'근대'·'식민'이 중첩적으로 表象된, '일그러진 근대의 상징장소'였다.

상술한 '일그러진 근대도시' 중에 하나였던 撫順은 공업의 원동력인 석탄의 도시로서 연료의 원천이자 과학공업의 중심지였다. 전력공급의 원천인 渾河의 풍부한 수자원과 무진장한 석탄 매장량을 지녔던 무순(撫順)은 양호한 공업조건을 구비한 만주최대의 광공업도시였다.[1] 게다가 무순은 남만주의 곡창지로 불린 東邊道를 배후로 두고 있었으며, 농산물 및 잡화류의 중계 무역 시장으로서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2] 그래서 무순은 근대시기 '만주의 寶庫'로 불렸다. 이 글에서는 러시아와 일본의 鑛區점령을 계기로 撫順炭礦[3]이 개발되면서 탄광을 중심으로 근대도시로 변모해간 무순시를 사례로 근대 만주 광공업도시의 형성, 삶,

---

1) 奉天交通株式会社 編, 1939,『炭都撫順案内』, 奉天: 奉天交通, 3쪽; 撫順實業協會 編, 1936,『撫順商工要覽』, 大連: 撫順實業協會, 24쪽. 1925년경 무순탄광의 석탄 매장량은 약 10억 톤으로 만주국 전체 추정량의 약 60%를 차지했고, 연간 석탄 생산량은 만주국 전체의 80~90%인 648만여 톤에 이를 정도였다. 생산된 석탄의 용도를 보면, 만철회사 130만 톤, 만주국 150만 톤, 벙커용(군용) 60만 톤이 소비되었고, 나머지는 일본에 145만여 톤, 조선에 36만 톤, 중국에 110만여 톤, 남양에 20여만 톤이 수출되었다(南満洲鉄道株式会社庶務部調査課 編, 1928,『本邦の工業と満洲の原料(二)』(パンフレット 第52号), 大連: 南満洲鉄道株式會社, 36-41쪽). 1934년도 무순탄광의 채탄량은 만주국 석탄생산량의 76%였고, 무순탄광의 석탄 운임비는 만철 운임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1937,『炭礦讀本(昭和十一年度版)』(滿鐵史料叢書 1), 大連: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礦, 9·14쪽).

2) 撫順實業協會 編, 앞의 책, 18쪽.

3) 1918년 이전까지 '撫順炭坑'으로 불렸지만, 그 이후에는 '撫順炭礦'으로 개명되었다(松村高夫·解學詩·江田憲治 編著, 2002,『滿鐵勞働史の研究』,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287쪽).

www.kci.go.kr

민족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식민지 수탈론'을 음미해 보려고 한다. 후술하겠지만 근대 시기 무순은 '개척(개발)'·'근대'·'식민'의 요소가 중첩적으로 表象된 독특한 지정학적·시대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무순에 관한 선행연구[4]에서는 무순탄광의 노무체계, 把頭제도, 민족관계, 광부들의 생활 및 사상자 현황, 만철의 무순탄광 경영 및 광부 모집실태, 일본의 만주 자원약탈 및 탄광 장악과정, 무순 노동자들의 항일투쟁, 무순탄의 수송실태, 무순탄전개발에 따른 공업화 효과 등을 다루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 즉 제국주의 세력(러시아, 일본)의 침탈을 계기로 무순시가 무순탄광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발(개척)되고 근대적인 도시로 변모해 갔는지, 식민화 과정에서 각 민족의 삶이 어떠했고 각 민족 간의 갈등과 차별이 어떻게 제도적·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갔는지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이 글의 집필 필요성을 배가시켜 주는 동시에 창의성을 담보해준다.

Ⅱ. 무순탄광의 식민지적 침탈

러일전쟁 이전 撫順은 석탄 생산지라 하여 '撫順炭坑'이라고 불렸고 1918년에는 '撫順炭礦'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당시 석탄은 무순에서가 아니라 그 남동쪽 일대의 千金寨, 揚拍(加)堡, 老虎臺 등의 炭坑에서 채굴되고 있었다.[5] 1895년 삼국간섭 후 러시아의 입김이 커지고 露淸銀行이 개입하면서 러시아 자본이 석탄 채굴에 참여하기 시작했다.[6] 러시아는 1898년부터 만주에 동청철도를 부설하면서 중국 지방당국으로부터 철도의 행정권을 승인받았으며, 旅順·大連지역을 租

4) 상세한 내용은 윤휘탁, 「'근대성'과 '식민성'의 중첩적 표상–만주국 무순탄광의 노무체계와 민족관계」, 『만주연구』 제33집, 만주학회, 2022, 92-93쪽 참조.

5) 蜷川 新, 1929, 『亜細亜に生きるの途』, 東京: 日本書院, 249-250쪽; 江田憲治 編著, 앞의 책, 287쪽.

6)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1909, 『撫順炭坑』, 大連: 南滿洲鐵道株式會社, 6-32쪽.

www.kci.go.kr

借地로 삼고 하얼빈에서 여순까지의 동청철도 남부지선의 부설권도 승인받았다. 1900년 義和團事件을 계기로 러시아는 의화단으로부터 동청철도의 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구실로 제멋대로 철도수비대를 편성하고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 만주를 점령했다.[7)]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는 동청철도에 사용할 석탄을 확보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모든 鑛區를 점령하고 군인을 동원해 석탄을 채굴한 뒤 군사용에 충당했다. 당시 러시아가 매수한 탄광 매수용지는 소규모 지역에 그쳤기 때문에, 러시아는 필요한 토지를 제멋대로 점령하고 사용했다. 또한 러시아는 撫順支線鐵道 부설에 따른 토지를 매수할 때도 중국인 지주와 어떠한 교섭도 하지 않고 철도를 부설한 후 자신들이 정한 토지의 등급에 따라 地代를 지불했다. 그나마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의 지대 지불도 중지되었다.[8)] 그야말로 러시아의 탄갱 광구 및 철도부설 용지의 확보는 러시아의 압력과 군사적 간섭,[9)] 즉 제국주의적 침탈 내지 군사적 점령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러일전쟁 시기 무순탄광[10)]은 東淸鐵道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무순매광공사에서는 蘇家屯에서 동청철도 지선을 끌어들여 炭塊를 동청철도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화흥리공사에서도 동청철도를 이용해 탄괴를 운반했다.[11)] 1905년 러일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러시아군은 무순탄광 내의 건물을 소각하고 채굴기계를 파괴하고 갱내에 물을 주입시켜 조속한 기일 내에 탄갱의 복구를 곤란하게 만든 뒤 북쪽으로 도주했다.[12)]

---

7) シー·ウオルター·ヤング, 1932,『南滿洲鉄道附属地に於ける日本の管轄権』, 東京: 拓務大臣官房文書課, 8-12쪽.

8)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65쪽; 松村高夫·解學詩·江田憲治 編著, 앞의 책, 287쪽.

9) 撫順實業協會 編, 앞의 책, 3쪽.

10) 무순탄광의 위치, 지형, 지질, 탄층, 탄질에 관해서는 農商務省地質調査所 編, 1921,『海外鑛物調査報告』第4號(支那之部), 東陽堂, 67-81쪽 참조.

11) 蜷川 新, 앞의 책, 249-251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33-34쪽, 264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1937,『炭礦讀本(昭和十一年度版)』(滿鐵史料叢書 1), 大連: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礦, 21쪽.

12) 南滿洲鉄道株式会社庶務部調査課 編, 1927,『南滿洲鉄道株式会社二十年略史』, 大連: 南滿洲鉄道株式會社, 159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1쪽, 37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위의

www.kci.go.kr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포츠머스조약」에 따라 러시아로부터 요동반도 남단의 러시아 租借地(旅順, 大連 지구), 동청철도 南滿支線, 각종 광산과 부대시설, 그것에 부속된 토지 등을 양도받았으며 동년 청조의 승인을 얻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05년 넘겨받은 러시아 조차지를 '關東州'라 명명하고 식민통치기구로서 關東都督府를 설치했다. 1906년에는 동청철도 남만지선을 운영하기 위해 국책회사인 南滿洲鐵道株式會社(이하 滿鐵)를 설립했고, 이 철도를 수비하기 위해 關東軍을 조직했다.[13]

1905년 3월 일본은 무순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무순탄광의 鑛區를 넘겨받아 撫順採炭所를 설치하고 이것을 일본 大本營에 예속시켰다. 일본은 千金寨의 옛 갱도를 이용해 채굴하고 새로 두 개의 갱도를 굴착해 1일 간 300톤가량의 석탄을 채굴했다. 동년 9월 일본은 野戰鐵道提理部의 감독 하에 野戰鐵道第一採炭班을 조직해 1일 채탄량을 약 1,400톤으로 증가시켰다.[14] 이 시기 무순 광구의 면적은 약 1,674만 7천여 평에 달했다.[15] 1907년 4월 만철은 일본 관동도독부로부터 일본육군 소관의 철도 및 탄광의 운영권을 인계받았다. 이 당시 무순탄광은 동아시아 최대의 탄광으로 채탄면적은 千金寨炭坑 3만 4,808평, 揚拍(加)堡炭坑 8,164평, 老虎臺炭坑 1만 8,605평 등 합계 6만 1,577평이었다. 1935년경 무순탄광의 광구면적은 6,016만㎡으로 확장되었고, 광구의 동서 길이는 17km, 폭은 남북 4km, 탄층의 평균 두께는 40m, 古城子의 최고 탄층 두께는 120m에 달했고, 매장량은 10억 톤으로 예상되었다.[16]

일본은 청조로부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17] 러일전쟁 승리의 대가로

책, 17쪽.

13) 「關東州」, 『百度』(https://baike.baidu.com/item/%E5%85%B3%E4%B8%9C%E5%B7%9E/104448 61?fr=aladdin); 南滿洲鉄道株式会社北満経済調査所 編, 1939, 『満洲の探検と鉱業の歴史』, 大連: 興亞書院, 528쪽.

14) 撫順實業協會 編, 앞의 책, 3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1쪽, 37-42쪽, 264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17쪽; 南滿洲鉄道株式会社庶務部調査課 編, 앞의 책, 159쪽.

15) 앞의 책, 『撫順炭坑』, 34-35쪽.

16) 帝国在郷軍人会本部 編, 1937, 『満洲概観』, 東京: 帝国在郷軍人会本部, 38쪽; 撫順實業協會 編, 앞의 책, 43쪽; 南滿洲鉄道株式会社庶務部調査課 編, 앞의 책, 160쪽; 社會教育會 編, 1931, 『滿蒙讀本』, 東京: 社會教育會, 25쪽; 松村高夫·解學詩·江田憲治 編著, 앞의 책, 286-287쪽.

www.kci.go.kr

러시아로부터 양도받은 것이었다. 무순광구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만철 역시 러시아 및 일본이 군사적으로 점령한 탄갱지역의 중국인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탈방식으로 무순광구를 무단 점령했기 때문에, 무순탄광의 운영 주체(일본)와 해당지역 지주들 및 청조 사이에는 많은 갈등이 분출하고 있었다.[18] 중국인 지주들은 중국관헌에게 자신들의 토지반환과 青苗代의 배상을 일본 측에 요구하도록 민원을 제기했다. 1907년 奉天 교섭당국은 러일전쟁 중 일본군이 무순에서 점령한 일부 탄갱의 반환과 민원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포츠머스조약」에 의해 러시아로부터 광구 운영권을 양도받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국제법상의 권리이며, 중국 국내법의 통제를 받는 다른 외국인 소유 채굴권과 달리, 중국 국내법에 의해 허가받아야 할 권리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즉 일본은 무순탄광의 채굴권이 상술한 협약에 의해 국제법상의 구속을 받을 뿐이며 중국 국내법의 통제를 받는 권리는 아니라고 주장했다.[19]

만철에서는 중국인 지주들의 토지를 계속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지역민들의 감정을 해쳐 회사에 이익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했다. 만철에서는 탄갱의 확장과 그에 따른 인구유입 등을 고려해 시가지를 조성하고 중국인 토지에 가옥 등을 건축하려고 했으므로,[20] 원활한 도시계획의 수립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필요했다. 1907년 9월 만철에서는 중국 측과 협상을 벌여 중·일 쌍방의 협상위원 입회하에 용지매수 각서를 교환했다. 1908년 1월 중국 측에서는 토지 실측위원을 탄갱에 파견했고, 일본 측 탄갱 협상위원과 중국 측 鄕長·地主가 모여 협의한 후 동년 5월까지 매수지의 측량을 완료했다. 만철이 매수한 토지의 총면적은 119만 131坪이었는데, 이 가운데 철도용지를 제외한 탄갱 용지는 95만 5,115평이었다. 토지매수 금액은 12만 6,877엔에 달했다. 1909년 3월 말까지 무순광구의 운영주체인 만철이 확보한 무순탄광의 용지는 民政部 사용

17)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19-20·22-23쪽.
18) 滿鐵調査部調査役付法制係 編, 1938, 『撫順炭礦ノ法律關係』(極秘), 5-8쪽.
19)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23-24쪽.
20) 撫順實業協會 編, 앞의 책, 43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65-266쪽.

www.kci.go.kr

지, 육군 사용지, 도로용지, 공원용지. 溝渠용지, 시가지 택지, 경지, 공장용지, 線路용지, 광업용지 등 총 95만 5,115평이었다.[21]

1909년 9월 일본은 청과 「滿洲及び間島に關する日清協約」(間島協約)을 체결하고 關東州, 중립지대, 撫順·煙臺炭坑, 관동주 외 철도연선 지역의 광산 채굴권, 東三省 및 중국 각성에서의 鑛務 合辦權을 획득했으며,[22] 1911년에는 청·일 간에 무순탄광 및 煙臺탄갱의 礦界, 광산세, 수출세, 면세, 보상금, 기득권의 불가침, 民地매수, 채굴기간 등에 관한 협약(「撫順·煙臺 兩炭坑에 관한 細則議定書」)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만철은 무순탄광의 舊 경영자였던 王承堯에게 庫平銀 25만 5천량을 지급하고 탄갱의 광업권 문제를 종결지었다.[23]

만주국 수립 이전 중국 내 각 省에서는 화물 通過稅인 厘捐을 부과하고 있었지만, 무순탄광에서는 상술한 협약에 의해 이연이 면제되었다.[24] 무순탄광에서는 중국정부가 각지에 부과한 세율 가운데 최저치를 요구할 권리도 가지고 있었다. 무순탄광에서는 광구의 범위설정에서도 특권을 지니고 있어서 애초의 광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塔運坑을 임의대로 무순탄광의 광구에 포함시켰다. 무순탄광에서는 광구 내에 광업상 혹은 철도 연장 시 필요할 경우 광업용지 혹은 철도용지를 매수할 권리도 가지고 있었다. 협약에는 만철 이외에 제3자의 채굴 금지권도 명기되었고, 채탄, 광물 운반, 광부 고용에 관한 보호 청구권도 부여되었다.[25]

결국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무순광구 운영권을 넘겨받았다가 중국정부와의 불평등 협약인 「간도협약」과 「무순·연대 양 탄갱에 관한 세칙 의정서」를 체결하고 무순탄광의 운영권을 헐값에 강탈한 것으로 러일전쟁의 전리품이자 대륙 침략정책의 산물이었다.[26]

---

2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66-269·292-293쪽.

22) https://www.wikiwand.com/ja/%E6%97%A5%E6%B8%85%E5%8D%94%E7%B4%84; 1914, 「支那各省內外合辦採鑛條約要綱」, 『南滿洲ニ於ケル帝国ノ鉱業権』, 大連: 南滿洲鉄道鉱業部鉱務課, 55-81쪽.

23) 保田宗治郎 著, 1914, 『南滿洲ニ於ケル帝国ノ鉱業権』, 大連: 南滿洲鉄道鉱業部鉱務課, 2-27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19-20·22-23쪽.

24)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24-25쪽.

25)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26쪽.

www.kci.go.kr

Ⅲ. 무순시의 형성과 근대적 변모

근대시기 關內(중국 본토) 중국인의 만주이주가 급증하면서 만주에는 인구가 늘고 곳곳에 새로운 촌락과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난방용이나 연료용 석탄 이외에 철강의 수요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무순탄광의 시발지인 千金寨는 원래 50호에 불과한 중국인 촌락이었다.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추구하던 러시아는 1900년 義和團事件을 계기로 만주를 점령하고 탄광이나 철광산을 침탈했다. 러시아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패배해서 탄광 운영권을 일본에게 양도할 때까지 千金寨, 楊柏堡, 老虎臺 炭坑에서 활발하게 채굴활동을 벌이면서 노동자들을 모집했다. 1905년 일본군이 천금채 광구에 진입한 후에는 일본에서 채탄 기술자와 그 가족, 상인, 투기꾼, 낭인, 모험가, 藝妓 등도 몰려들었다.[27] 이 시기 천금채 탄갱에 종사한 일본인은 技師 3명, 서기 16명, 雇員 62명 등 직원 110명, 職長 이하 傭人 246명 합계 356명에 이르렀다. 게다가 탄갱에는 천금채사무소를 비롯해 11개 동의 사무소 건물, 炭坑長 숙사, 社員 숙사, 雇員이하 숙사, 중국인 노동자 숙사, 6개 동의 기계공장, 창고, 병원, 화약고 등 수십 동의 건물이 잇달아 신축되었다.[28] 러시아의 군사적 침탈시기 무순에는 탄갱을 중심으로 탄광촌이 형성되었고, 이것의 규모가 커지면서 점차 초보적인 도시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1905년 일본 군정시기 일본인들은 중국인 촌락에 들어가 토지를 차입해 가옥을 건축하고 중국인과 잡거했다. 무순의 일본인은 무순일본인거류민회를 조직하고 자치행정을 실시했다. 그런데 1907년 9월 일본 關東都督府에서는 무순의 만철부속지 내 일본인거류민회를 해산하도록 명하고 「만철부속지 거주자 규약」을 발포했다. 또한 동년 12월 관동도독부에서는 蘇家屯 以東(소가둔 제외)에 위치한 만철

---

26) 李世宇, 2007, 「僞滿時期滿鐵撫順煤礦中國工人狀況之考察」, 『許昌學院學報』 第1期(第26卷 第1期), 98쪽.

27) 孟琪, 2014, 『滿鐵在撫順地區的經營活動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5쪽.

28)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1·37-43·203-204·223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17쪽.

www.kci.go.kr

부속지에서의 토목, 교육, 위생 등에 관한 사무 및 토지·건물에 관한 자치행정 사무는 만철 무순탄광 서무과장이 전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만철 산하의 무순탄광 서무과장이 만철 무순지방사무소장을 겸임하면서[29] 종래의 무순일본인거류민회장으로부터 무순의 만철부속지 내 토목, 위생, 교육 방면에서의 자치 행정권을 넘겨받아 집행했다.[30] 일본의 국책회사인 만철은 관동도독부로부터 인계받은 일본육군 소관의 철도 및 탄광구역과 자체적으로 중국인 지주로부터 매수한 토지 등을 합쳐 관할 구역으로 삼은 뒤 이곳을 '만철부속지'로 통칭하면서[31] 남만주철도 연선(沿線)의 도시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해 교육, 위생, 토목 방면에서 식민지 행정을 전담했다. 이로 인해 무순의 만철부속지도 일본의 '半식민지'처럼 운영되었다.

1907년 12월 만철 산하 무순탄광 서무과장이 무순의 자치 행정권을 전담한 이후, 무순시에서는 호수에 따라 할당되는 세금 항목을 신설하고 부과규칙도 제정했다. 선임된 행정위원 5명이 예산을 짜고 집행했다. 당시 도로수리, 교량가설, 하수준설, 중국인 苦力(쿠리)들의 변소 설치 등의 토목사업은 예산 관계상 千金寨의 舊시가지로 한정해 시행되었다. 천금채 이외의 지역에서 새로운 탄갱들이 개착되면서 조성된 신시가지에서의 토목사업은 무순탄광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출해 시행했다. 위생사업으로는 매주 1회씩 매춘부에 대한 위생 검진을 통해 성병의 전파를 방지했고 각 호의 분뇨와 오폐물을 처리했으며, 봄가을로 나누어 種痘를 실시했다. 또한 大淸潔法을 제정해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환자를 격리 수용하고 소독을 실시했다.[32]

교육사업과 관련해 무순탄광에서는 일본인거류민회로부터 교육권을 인계받아 탄광 소유의 亞鉛張家屋을 빌리고 西本原寺의 布教師 1명이 아동교육을 담당케 했다. 그 후 무순탄광 서무과가 교육행정을 맡게 되면서 새로 訓導를 초빙하고

29) 1936년 9월부터는 별도로 임명된 만철 무순지방사무소장이 단독으로 무순시의 행정을 맡았다(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612쪽).
30)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90-291쪽.
31) 滿洲開發四十年史編纂委員會 編, 1988, 『滿洲開發四十年史』,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431쪽.
32)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90-292쪽.

www.kci.go.kr

숙사 1동을 교사로 개조해 난방 및 교육 도구를 갖추게 되면서 일본인 입학 아동 수도 급증하자, 1908년 신시가지에 벽돌식의 영구적인 교사를 신축했다. 이를 계기로 1909년 교실 2동이 신축되었고 교장 1명, 훈도 4명, 아동 179여 명의 학교로 발전했으며 교육 경비는 무순탄광에서 보조했다.[33] 무순시의 교육기관 대부분은 일본인 자제들을 위해 설립되었고 조선인이나 중국인을 위한 학교는 거의 없었다.[34] 교육 시설 방면에서도 식민지적 민족차별을 보여주고 있었던 셈이다.

1916년 12월 들어 무순시에는 區長제도가 신설되어 무순지방사무소장의 공공사업이나 區의 사무에 대한 자문기관 역할이 부여되었다. 구장은 명예직으로서 무순지방사무소장이 지명했다. 구장은 해당 구의 사정에 정통했기 때문에 課金戶數 할당을 査定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구장은 冠婚葬祭, 町內의 회비 및 기부금의 모집, 부부 싸움의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1921년 7월에는 지방위원회가 조직되어 무순지방사무소장의 공공사무 자문기관 역할을 했다. 지방위원회 위원의 경우 세금납부 호수(課金戶數 割賦課戶數)가 500호 미만인 區에서는 6인이, 500~1,000호의 구에서는 8인이, 1,000~1,500호의 구에서는 10인이, 1,500호 이상의 구에서는 12인이 선출되었다. 별도로 지방위원 정수의 절반 내에서 예비위원도 선출되었다. 당시 1구의 지방위원은 대략 12인 정도였다. 지방위원회 위원은 公選이었다.[35] 만철 산하 무순지방사무소장은 무순시의 행정 집행과정에서 중국인 재력가나 유력자들을 보조적으로 활용해 사실상 무순시내 만철부속지를 半식민지적으로 통할하고 있었다.

식민지적 행정체계 수립과 아울러 일본 군정당국(관동도독부)과 만철은 무순광구를 차지한 후 적극적으로 석탄 채굴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애초의 千金寨, 古城子炭坑 이외에, 동쪽 지역에서 새롭게 楊柏堡, 東鄕, 大山, 老虎臺, 萬達屋, 新屯,

33)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90-292쪽.

34) 1936년경 일본인 子弟 교육기관으로는 尋常小學校 4곳, 고등소학교 1곳, 중학교 1곳, 고등여학교 1곳, 공업학교 1곳, 청년학교 1곳이 있었다. 조선인 자제 교육기관으로는 보통학교 1곳만이 있었고, 중국인 자제 교육기관으로는 公學校 1곳, 家事講習所가 있었다. 무순시에는 도서관이 신설되었다(撫順實業協會 編, 앞의 책, 5쪽).

35)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614-616쪽.

www.kci.go.kr

龍鳳 등의 탄갱을 개착했다. 또한 새로운 노천 탄층도 발견되어 대대적인 굴착도 이루어졌다. 탄갱의 채굴이 본격화하자, 천금채에는 일본인과 중국인의 왕래가 많아졌고 중국인 촌락들이 불규칙하게 빼곡히 들어서기 시작했다.[36]

1907~1908년 사이 무순탄광 지역에는 벽돌로 지어진 千山臺의 탄광중앙사무소, 천금채 東竪坑사무소, 大山坑사무소, 양백보사무소, 노호대사무소, 東鄕坑사무소, 水源池사무소 등이 들어섰다. 탄광중앙사무소는 만철 산하의 탄광사업을 담당하면서 천금채, 고성자, 대산, 동향, 신둔, 만달옥, 양백보, 노호대, 용봉탄갱 등의 채탄소들을 총괄했다. 1908년경 탄광지역에는 만철 사택을 비롯해서 기계공장, 木공장, 鍛冶공장, 製罐공장, 鑄物공장, 벽돌공장, 기계창고, 유류창고, 화약고, 의원, 소학교, 수비대, 우편국, 여관 등이 건축되었다. 그리고 만철 소유의 택지들이 대여되자, 일반인들의 가옥도 잇달아 신축되었다. 이처럼 천금채를 중심으로 각종 건조물과 가옥들이 숲을 이루기 시작했고, 각종 건물이나 가옥마다 높이 솟은 수많은 굴뚝에서 내뿜는 검은 연기는 장관을 이루었다.[37] 이 때문에 당시 무순은 검은 석탄가루가 휘날리는 칙칙한 도시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38]

만철에서는 탄광개발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면서 무순시가 도시 형태를 띠어가자, 가로, 수도, 전등, 가스 시설 등을 비롯해서 공원, 병원, 각종 학교, 도서관 등의 시설을 갖춘 이상적인 근대도시를 만들려고 기획했다.[39] 특히 만철에서는 일본인과 중국인이 운집해 雜居하는 상황에서 일본인 위주의 도시 주거환

36)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3쪽.

37) 奉天交通株式会社 編, 1939, 『炭都撫順案内』, 奉天: 奉天交通, 3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3·151-209쪽.

38) 撫順實業協會 編, 1936, 『撫順商工要覽』, 大連: 撫順實業協會, 1쪽. "나도 이 공장에 처음 들어오던 날 밤에 이 불에 홀려서 무슨 야단스러운 밝은 도회거니 하였다. 그러나 밝고 보니 거멓게 멍든 무서운 거리였다."(한설야, 1989, 『합숙소(合宿所)의 밤』, 김외곤 편, 『과도기』, 태학사, 100쪽) "광산 위에 높게 솟아있는 거대한 굴뚝에서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다. 멀리서 자욱하게 흐르는 흰 안개와 거무칙칙한 연기가 한 곳에 섞여있다. 이미 어느 것이 안개인지 어느 것이 연기인지 구분하기 힘들다."(王秋螢, 1996, 『礦坑』, 張毓茂 主編, 『東北現代文學大系』, 瀋陽: 瀋陽出版社, 383쪽; 김창호, 2016, 「푸순(撫順)탄광과 한중소설」, 『만주연구』 제22집, 맞주학회, 22-23쪽 및 유수정, 2009, 「두 개의 「합숙소의 밤」과 '만주'」, 『만주연구』 제9집, 만주학회, 155쪽에서 재인용).

39) 撫順實業協會 編, 위의 책, 9쪽.

www.kci.go.kr

경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新市街地 조성에 착수했다.

우선 만철에서는 千山臺 북쪽 기슭의 남만주철도 북방의 수수밭 등지 30만 1,532평을 매수해 신가지의 부지로 확보했다. 그 중 5만 3,163평은 사택택지로, 11만 7,028평은 임대택지로, 8,676평은 공원부지로, 나머지는 도로, 제방, 外濠(해자)의 부지로 구획했다. 사택부지는 시가지 동쪽에 위치지우고 신시가지 주위에 너비 네 칸의 외호를 파서 중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舊시가지(千金寨部落)와 격리시켰다. 그리고 외호와 접한 서쪽지역은 주로 중국인 거주용 임대택지로 구획했다. 외호 주위에는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탄갱 내에서 배출되는 물과 시내의 폐수가 이 외호를 통해 渾河로 배출되도록 설계했다. 무순시를 관통하는 渾河의 범람에 따른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방시설도 축조되었다.[40] 신시가지 조성 당시 만철에서는 일본인 위주 거주지인 신시가지 주위에 외호를 파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분리시키고 외호 밖에 중국인 주거용 임대택지를 구획했던 것이다. 이 조치는 중국인들이 일본인 위주 거주지인 신시가지로 난입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도시구획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1907~1908년 시기 무순 신시가지에는 만철탄광 종사자용 사택들이 많이 신축되었다.[41]

근대적인 도시, 즉 신시가지의 가로는 만철 奉撫線(봉천-무순)의 종점인 무순역을 중심으로 방사선식으로 뻗어나가도록 설계되었고 아스팔트로 포장되었다. 무순역은 원래 千金寨驛으로 불렸는데 러일전쟁 때 일본 鴨綠江軍을 위해 撫順支線의 종점을 渾河 河岸까지 연장하면서 大正 초년에 개명되었다. 신시가지에는 천금채 정거장 북방의 本町通을 중심으로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7개,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15개가 만들어졌는데, 도로명칭은 모두 일본식으로 명명되었다. 도시구획에 따른 구역명칭도 富士見町, 朝日町, 大和町, 春日町, 吉野町, 鹿島町 등 일본식으로 지어졌다. 이러한 도로 및 도시구획 명칭은 '중국 땅에 조성된 일본의 식민도시'를 연상케 했다.[42]

---

40)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10·219-220·274-277쪽.

41) 南滿洲鉄道株式會社 編, 1911,『南滿洲鉄道案內』, 大連: 滿洲日日新聞社, 165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21-222쪽.

www.kci.go.kr

일본인 위주의 신시가지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근대적인 시설들이 들어서 비교적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신시가지 조성 당시 무순시에는 일본식 명칭을 딴 本町公園과 大和공원이 만들어져 나무가 심어지고 화단이 꾸며졌으며, 시민들의 유희와 산책을 위한 공간으로서 광장 4곳이 조성되었다. 신시가지에는 하수도 공사가 이루어져 하수체계도 갖추어지기 시작했다. 별도로 苗圃도 조성되어 여기에서 생장한 나무들이 공원이나 도로 주변에 식재되었다.[43] 이에 비해 중국인 위주의 구시가지인 천금채 지역에는 건물들이 무계획적으로 들어섰고 가옥도 지저분하고 초라했으며 거리도 질척거리고 더럽고 혼란스러웠고 광산노동자의 주거 환경도 열악했다. 1919년 이후 구시가지인 천금채의 중국인 시가지도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는데, 당시에 '新撫順'이라 불렸던 이곳 역시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했고 가옥도 촘촘히 들어서 도로도 좁았고 공장에서 배출된 매연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했다.[44]

1910~1920년대에 들어 도시가 발전하면서 신시가지의 가로에는 마차 이외에 점차 택시, 버스, 삼륜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왕래하기 시작했고, 1923년 12월 치외법권이 철폐되면서 무순시는 舊만철부속지와 撫順縣의 일부가 합병되어 동서 20km, 남북 6km, 인구 약 20만 명의 도시로 성장했다.[45] 1924년 탄광도시의 현관을 상징한 무순역은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이전되면서 근대식으로 개조되었다. 또한 露天掘이 확장되고 무순의 구시가지(千金寨)가 신시가지 근처로 이전되면서 무순역은 승객전용 역사로, 구시가지인 천금채에 소재한 大官屯驛은 화물전용 역사로 구분되었다. 1925년경부터 撫順驛舍가 신축·이전되었고 千金寨의 중국인 구시가지도 일본인 신시가지 서쪽 인근으로 이전되었다.[46]

무순에는 근대적 삶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전기도 공급되기 시작했다. 즉 1908

42)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21-222쪽; 南滿洲鉄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165쪽.
43)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21-222쪽.
44) 松村高夫·解學詩·江田憲治 編著, 앞의 책, 『滿鐵勞働史の研究』, 287쪽; 孟琪, 2014, 『滿鐵在撫順地區的經營活動研究』,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5-26쪽.
45) 岩根正雄 編, 1939, 『炭都撫順』, 東京: 月刊滿洲社, 5쪽.
46) 撫順實業協會 編, 앞의 책, 3-4쪽.

www.kci.go.kr

년 大山坑에 중앙발전소가 세워져 각 채탄소의 채탄, 운반 기계시설 등에 먼저 송전되다가 잉여 부분이 무순시내의 일반인 생활시설에도 제한적으로 송전되었다. 그 후 대산갱의 중앙발전소를 기점으로 대산갱, 東鄕坑, 천금채, 양백보, 노호대, 무순시에 이르기까지 전선과 전화선이 가설되면서 무순탄광을 비롯해 탄광 밖의 관공서, 만철 지방부, 학교, 의원, 배급소, 정거장, 만철사택에 수천 개의 전등이 설치되었다. 전화교환소도 생겨나 1909년 3월까지 무순의 전화가입자가 76명에 이르렀다. 물론 그 중 74명은 만철 무순탄광 종사자였고 2명은 만철탄광 이외의 사람이었다.[47] 만철부속지에는 무순우편국과 천금채 우편소가 만들어져 우편, 환전, 저금, 간이보험 등의 체신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무순전신전화국이 신설되어 1935년도 자동식 전화가입자 수는 만철 측(탄광 포함)이 1,148명, 일반 시민이 885명으로 합계 2,033명에 달했다. 무순전신전화국에는 라디오 商談部도 생겨나 방송 가입자 수는 일본인이 710명, 중국인과 조선인이 34명, 외국인이 1명으로 총 745명이었다.[48]

전기의 보급과 마찬가지로 水道설비 확충과 汲水문제 역시 무순 갱내의 汽罐 및 발전소, 더 나아가 무순 시가지의 일반시민에게도 필요불가결한 요소였다. 그 때문에 만철 무순지방사무소에서는 수도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이것의 일환으로 水源池 및 중앙배수지의 굴착 및 축조 공사, 聚水井 설치, 渾河의 수원지와 大山坑의 배수지를 연결하는 鐵管 부설공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배수지에서 무순 신시가 및 각 탄광 사무소, 기숙사, 병원, 배급소, 수비대 건물, 학교 등지까지 연결하는 배수관도 설치되어 汲水가 시작되었다. 가스 제조소도 설립되어 만철탄광 사택이나 병원 등지에 가스도 배송되었다.[49]

무순시에는 근대도시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병원도 들어섰다.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무순탄광의 운영권을 인도받을 당시 무순에는 목조건물 1동의 撫順炭坑醫院과 老虎臺에 분원이 세워져 있었다. 이때 이들 의원에는 의사 1명, 수명의

47)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151-198·269-270쪽.
48) 撫順實業協會 編, 앞의 책, 6-8쪽.
49)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10·274-277쪽.

www.kci.go.kr

직원이 있었을 뿐이고 의료설비도 매우 불완전했다. 초기에 이들 의원은 주로 탄갱종사자들의 진료를 목적으로 삼았다. 그런데 탄갱종사자와 일반시민들의 내원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1907년 12월 竪坑동방사무소가 의원으로 개조되었고 의료종사자도 증가했다. 1908년 12월에 신시가지에도 醫局과 병실 2동을 갖춘 의원이 들어섰으며, 1909년에는 병실 1동과 부인건강진료소가 증축되었다.[50] 1932년 무순시에는 舊시가지인 천금채에 濟民의원, 惠民의원, 博濟의원, 西法의원, 華英의원, 卽愈療병원, 花柳의원이 있었고, 신시가지에 무순의원, 中英의원, 衛生의원, 亞東의원, 대동의원이 있었다. 1938년경에는 만철의원이 있었고 각 채탄소에는 保養所가 설립되었다. 보양소에서는 公私傷을 불문하고 의사로부터 휴업 통원치료 진단을 받은 사택거주 노동자들을 진료·수용했다. 가족을 동반한 사택 거주자의 경우 일정액의 경비를 지불해야 했다.[51] 무순시의 유입인구가 증폭하고 의료수요도 급증해 병원들이 신설되면서 만철사원 이외의 일반인들도 점차 의료혜택을 누리기 시작했다.[52]

만철의 무순탄광 운영초기에는 탄갱 참관자들이 묵을 숙소가 없어서 곤란을 겪었으며, 만철사원들도 낡은 목조건물을 임대해 俱樂部로 사용하느라 불편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08~1909년에는 여관과 사원구락부를 겸용하는 서양식의 2층 벽돌건물이 신축되었다. 무순탄광 만철사원구락부의 본부는 천금채에 있었고, 지부는 楊柏堡와 老虎臺에 따로 설치되었다.[53] 종교시설과 관련해 일본 西本原寺의 派出所가 설립되어 포교사 1명이 상주해 전도 및 종교사무를 전담했다. 탄갱종사원뿐만 아니라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神社도 설치되었다. 1924년에는 러일전쟁 시기 奉天大會戰 및 무순 점령 때 희생된 일본군의 영혼을 위문하기 위해 表忠塔이 세워졌다. 만철이 탄갱 운영권을 인계받은 후 탄갱종사원들을 위무하기 위해 봄에는 開坑祝賀會가, 가을에는 鑛山祭가 열렸는데, 부근의 중국인

50)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77-278쪽.
51) 南滿州鉄道株式会社北満経済調査所 編, 1940,『満洲鉱山労働概況調査報告』(満鉄調査研究資料 第14編), 大連: 南満州鉄道株式會社, 243쪽.
52)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83쪽.
53)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83쪽.

www.kci.go.kr

들이 많이 모여들어 구시가지인 천금채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날은 탄갱 안팎의 손님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식당이나 餘興場이 개설되기도 했다. 탄갱종사자의 집회 및 오락장소로서 종사원 전부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도 신축되었다.[54]

무순 교외 千山臺 산등성이의 조망 좋은 곳에는 토벽과 나무로 둘러싸인 탄갱 묘지가 조성되었다. 탄갱묘지는 중국인 탄갱종사자의 묘지와 일본인 거류민의 묘지로 구분되었다. 누구라도 만철 炭坑地方部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얻어 묘지 사용료를 지불하면 이 묘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 묘지 부근의 산록에는 2동의 벽돌식 화장장도 설치되었다.[55]

탄갱에서는 복지차원에서 1908년까지 탄갱의 일용품을 일본의 山縣商會에게 위탁해서 판매하도록 했지만, 물품가격이 비쌌고 교통이 불편해 일용품 공급이 끊기는 등 물품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따라서 탄갱당국에서는 일종의 소비조합 형태의 물품배급소를 설립해 직영하면서 탄갱 종사원에 한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56] 1938년경까지 탄광 직영의 工人賣店은 古城子, 松田橋, 新揚堡, 腰戴子, 大山, 栗家溝, 老虎臺, 萬達屋, 新屯, 龍鳳, 기계공장 등에 설치되었다. 또한 撫順炭鑛工人金融部도 설립되어 貸付사무에 종사했으며, 무순탄광공인공제회도 조직되었다.[57]

1929년 무순시를 관할한 만철 무순지방사무소에서는 무순탄광 노동자들을 위해 무순시의 新市街 서쪽의 楊柏堡河 右岸에 탄광용지 3만 5천 평을 획정하고 5만 원을 투자해 '歡樂園'이라는 오락기관과 공원을 조성했다. 또한 把頭 및 복리기금에서 약 6만 원을 출자케 하여 歡樂園維持會를 조직해 이를 경영했다. 만주국 수립을 전후로 환락원 내에는 거대한 규모의 사당(廟宇)이 세워졌으며, 그 안에는 북경의 名匠을 초빙해 노동자들이 숭배하는 老君, 關帝, 財神, 火神, 娘娘, 觀

54) 奉天交通株式会社 編, 1939, 『炭都撫順案内』, 奉天: 奉天交通, 3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83-290쪽.
55)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85-286쪽.
56) 奉天交通株式会社 編, 앞의 책, 3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83-290쪽.
57) 南滿州鉄道株式会社北滿経済調査所 編, 앞의 보고서, 261-290쪽.

www.kci.go.kr

音 등의 神像을 조각해 설치했다. 사당 앞의 광장에서는 공연이 열리곤 했는데, 그 중 일부는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었다. 이 공원에는 온실, 꽃밭, 어조류 사육 설비 등이 갖추어졌다. 다양한 위락시설과 사당이 세워진 환락원 공원에는 자연스럽게 많은 노동자들이 몰려들면서 각종 물품을 파는 상점이나 식당, 자그마한 점포 등이 들어서게 되었고 점차 상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58]

그 후 위생환경 제고 차원에서 東公園(후에 永安公園으로 개칭), 西공원, 南공원, 중앙광장, 5곳의 아동 遊樂공원 등이 조성되었다. 영안공원에서는 낚시도 할 수 있었다. 만주국 시기 이 공원에는 '琥珀泉'이라는 온천장도 개장되었는데, 이곳은 부인병, 피부병, 위장병 등에 효험이 좋다고 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다. 무순탄광에서도 新屯공원, 龍鳳공원을 조성해 직영했으며, 각 채탄소에서도 中東공원을 조성했다. 당시 신둔공원은 규모가 가장 컸고 경치가 좋았다. 이 공원에서는 보트를 탈 수 있었다. 도시미관 차원에서 무순 시가지 및 교외도로, 중앙사무소, 학교, 병원, 역 주변에는 나무가 심어졌으며, 탄광구락부에도 정원이 조성되었다. 그밖에 苗圃, 採種田, 種畜場도 갖추어졌다.[59]

만철 운영초기 무순탄광을 중심으로 노동자나 그 가족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시설, 각종 사무소, 소방대, 각종 학교(중등학교 제외), 公會所(공회당), 유치원, 이발소, 병원, 탄광구락부 등이 건립되었는데, 무순시민들은 형식상 만철에서 그것들을 임대해 사용했다. 1938년경에는 약 9,600호를 사택에 수용하고 있을 정도로[60] 대규모의 사택단지가 조성되었다. 이와 아울러 만철부속지 면적도 계속 확장되어 1939년까지 약 68만여 ㎡에 달했다.[61] 무순시가의 일부 및 광구 내 각 탄갱 사이에는 전차가 부설·운행되면서 탄광 종업원과 시민의 편리를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석탄 및 화물운송도 담당했다.[62] 게다가 무순탄광 및 주변에는 발전소, 기계·

58) 南満州鉄道株式会社北満経済調査所 編, 앞의 보고서, 220·240쪽; 撫順實業協會 編, 앞의 책, 3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459-4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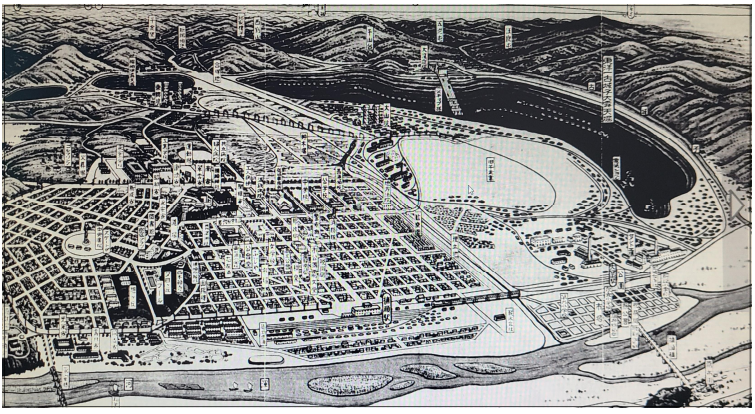
59) 撫順實業協會 編, 앞의 책, 40-42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624-626쪽.

60) 南満州鉄道株式会社北満経済調査所 編, 앞의 보고서, 254-255쪽.

61) 南滿洲鐵道株式會社總裁室地方部殘務整理委員會, 1939, 『滿鐵附属地經營沿革全史』 上卷, 南滿洲鐵道株式會社, 33-34쪽.

www.kci.go.kr

製油·제철·석탄액화·화약·화학공장, 각종 연구소 등이 세워져 콤비나이트가 형성되었다. 대규모의 중공업시설이 갖추어진 무순탄광은 만철의 철도사업 다음의 2대 사업체로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봉사하는 중요한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63] 무순탄광을 중심으로 무순시가 발전하면서 1931~1935년 사이 무순-봉천 간의 열차 이용객 수도 11만 6,700명에서 26만 7,812명으로 급증했다. 1934년 만철 철로총국에서는 봉천과 무순 두 도시를 경제·문화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도로를 개통하고 버스영업을 개시했다.[64] 이를 계기로 무순은 봉천성을 비롯해 만주국에서 최대의 중공업도시이자 교통체계의 요지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무순시는 점차 근대적인 도회지로 발전해가고 있었던 셈이다.



[그림 1] 炭都 撫順의 전경도
〈출전〉 岩根正雄 編, 『炭都撫順』, 東京: 月刊滿洲社, 1939.

만주국 초기에는 일본식의 筑紫館本店과 지점, 壽旅館, 近江屋여관 등도 생겨났다. 이들 숙박업소는 대련, 신경, 봉천 등지에 비해 숙박료가 저렴했고 시설도

62) 帝国在郷軍人会本部 編, 1937, 『満洲概観』, 東京: 帝国在郷軍人会本部, 93쪽; 撫順實業協會 編, 앞의 책, 9-17쪽.
63) 松村高夫·解學詩·江田憲治 編著, 앞의 책, 286쪽; 帝国在郷軍人会本部 編, 1937, 『満洲概観』, 東京: 帝国在郷軍人会本部, 93쪽; 南満洲鉄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612쪽.
64) 帝国在郷軍人会本部 編, 위의 책, 93쪽; 撫順實業協會 編, 앞의 책, 9-17쪽.

www.kci.go.kr

뒤떨어지지 않았다. 또한 영화 상설관으로 樂天館, 大衆座, 蜂谷慰安部가 들어섰다. 시설이 정비된 무순 공회당에서는 歌舞伎, 萬歲, 浪曲 등의 공연이 열렸다. 상설 대연극장에서는 주야로 2회 공연이 열렸고 노동자에게는 무료로 개방되었다.[65] 무순탄광에서는 솔선해서 만주국의 통치 이데올로기 주입, 위생사상의 보급, 노동자의 이동방지 등을 목적으로 영화 상영회나 강연회를 개최하거나 일본어를 교육했다. 특히 중국인 광산노동자의 문맹률이 67.7%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에서, 영화는 광산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통해 만주국의 경제, 위생, 문화, 통치이념 등을 주입시키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66]

Ⅳ. 무순시의 인구와 삶

한편 만주최대의 탄광지역인 무순에서는 석탄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수의 炭坑이 새로 개착되었고 석탄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전쟁이나 산업, 만철의 경영방면에서 무순탄광의 전략적·경제적 위상도 점점 높아졌다. 그 과정에서 탄광노동자를 비롯해 중국인과 일본인이 급격히 유입되었다. 1907년 3월부터 1909년 3월까지 무순의 일본인 인구는 434명에서 3,219명으로 7.41배 급증했다. 이 시기 무순탄광의 일본인 직원 수도 111명에서 248명으로 2.2배 증가했다.[67] 특히 만주국 수립 이후 석탄과 광부 수요가 급증하고 무순탄광의 채탄량이 증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招募[68]에 응하거나 자발적으로 무순탄광에 모여들면서 빈집이 없어지고 이들의 이동성도 적어져 무순시의 인구는 급증했다.[69]

65) 撫順實業協會 編, 앞의 책, 36쪽; 南滿州鉄道株式会社北滿経済調査所 編, 앞의 보고서, 231쪽.
66) 南滿州鉄道株式会社北滿経済調査所 編, 앞의 보고서, 218-219·232쪽.
67)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302-303쪽.
68) 于淑娟·張曉風, 2019, 「滿鐵撫順煤礦"招募"中國勞工手段揭秘」, 『蘭台世界』 第7期, 167-169쪽.
69)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617-618쪽.

www.kci.go.kr

[표 1] 撫順市의 연도별·민족별·성별 인구현황 (단위: 人, 戶, %)

구분		합계	일본인	조선인	중국인	외국인
1925		56,819 (100.0)	14,170 (24.9)	628 (1.1)	41,890 (73.7)	131 (0.2)
1930		83,059 (100.0)	17,708 (21.3)	2,000 (2.4)	63,283 (82.2)	68 (0.1)
1934		89,604 (100.0)	21,525 (24.0)	4,586 (5.1)	63,493 (70.9)	- -
1936	만철부속지	91,161	22,285	4,552	64,292	32
	기타 지역	약 32,000	미상	미상	약 32,000	미상

〈출전〉 1925년도 통계는 關東長官官房文書課 編, 1927, 『關東廳國勢調査結果表』, 大連: 滿洲日日新聞社, 253-254쪽, 「第五表 本籍,男女,年齡及配偶關係別人口 續 撫順」; 1930년도 통계는 関東長官官房調査課 編, 1933, 『關東廳國勢調査 昭和5年結果表 第2卷』, 関東長官官房調査課, 「1. 年齡,國籍,配偶關係及男女別人口 續 撫順」, 162-163쪽; 1934년도 통계는 앞의 책, 『炭礦讀本(昭和十一年度版)』, 617쪽; 1936년도 통계는 앞의 책, 『撫順商工要覽』, 5쪽.

1925~1936년 사이 무순시의 민족별·성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표 1] 참조), 전체인구는 5만 6천여 명에서 12만 3천여 명으로 2.16배 증가했으며, 일본인의 인구증가 속도가 빨랐다. 이 시기 전체인구 중 중국인이 70.0~82.2%를, 일본인이 21.3~24.9%를 차지했다. 무순탄광이 일본제국 및 만주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무순시의 일본인 구성비율은 만주국의 일본인 구성비율(2%)[70]보다 훨씬 높은 24% 가량을 차지했다. 같은 시기 조선인은 약 1%에서 5%로 증가하고 있었다. 1936년도 만철부속지의 민족별 인구현황을 보면, 중국인은 70.5%, 일본인은 24.4%, 조선인은 5.0%를 차지했고, 천금채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만철부속지 밖에 거주한 중국인은 약 3만 2천여 명이었다.

1930년 공공시설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무순시의 숙소별·세대인수별

70) 1940년 만주국의 臨時國勢調査에 의하면, 만주국의 총인구는 4,300만 명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漢族이 3,700만 명(86%), 만주족이 270만 명(6%), 回族(이슬람族)이 200만 명(5%), 몽골족이 100만 명(2%), 조선인이 150만 명(3%), 일본인이 82만 명(2%), 러시아인이 7만 명이었다(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1971, 『滿洲國史(各論)』 東京: 滿蒙同胞援護會, 58쪽).

www.kci.go.kr

거주자 현황[71]을 보면, 전체인구 3만 2,444명 가운데 76.5%인 2만 4,807명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무순시에서는 아마도 학교를 낮에는 교육용으로, 밤에는 탄광노동자들의 기숙사, 즉 社宅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 같다. 전체 인구의 19.2%(6,241명)는 각종 공장기숙사에서 생활했다. 즉 전체의 95.7%가 집단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들 중에 20인 이상의 집단거주지에서 생활한 사람들의 비중도 매우 컸다. 심지어 50인 이상이 한 세대를 이루어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도 94세대나 되었다. 기숙사 거주자들은 대부분 고향에 가족을 남겨두고 단신으로 만주로 건너와 독신생활을 한 出稼노동자들이었다. 1934년도 무순탄광의 노동자 가운데 약 74%가 탄광사택에 수용되어 있었다. 그 이외에는 부근의 촌락에서 통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1934년 4월 당시 무순탄광의 사택 동수는 독신자용이 393동, 가족 동거용이 458동으로 총 851동이었다. 탄광사택에는 독신노동자 1만 7,335명(83.4%), 가족동거 노동자 3,452명(16.6%) 등 총 2만 787명이 수용되어 있었다.[72]

주거환경과 관련해 만철 산하 무순지방사무소에서는 만철 사원용 사택을 많이 신축했다. 사택은 거주자의 직급에 따라 甲種~己種까지 7등급으로 나뉘었으며 등급에 따라 크기와 수용 인원이 달랐다. 甲種사택은 炭坑長을 비롯한 고위 직원용이었고, 乙種사택은 각 課主任들의 거주용으로 모두 2층 벽돌건물이었다. 주로 일본인 직원을 위한 갑종~丁種사택과 중국인 노동자들을 모집·관리하는 小頭들의 주거용 2층 벽돌건물은 모두 주거환경이 양호한 신시가지에 축조되었다. 이에 비해 등급이 떨어지는 戊種~己種 이하의 사택은 傭人을 위한 단층 벽돌건물로서 신시가지 밖의 각 탄갱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役員 및 傭人들의 합숙소인 庚種사택은 방 하나에 취사장이 딸린 목조 단층건물이었다. 일본인 역원, 직공의 숙사에는 철관을 통한 증기식 난방장치가, 중국인 숙사에는 온돌식 난방장치(캉炕)가

71) 関東長官官房調査課 編, 1939,『關東廳國勢調査 昭和5年結果表 第1卷』, 関東長官官房調査課,「3. 人員級別準世帶 續 撫順」, 62쪽.

72) 満鉄本社能率係 編, 1929,『撫順炭鉱、東郷本坑出炭作業ニ就テノ研究報告』(能率調査資料 第4輯), 大連: 満鉄本社, 2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9·458-459쪽.

www.kci.go.kr

설치되었다.[73] 천금채채탄소, 노호대채탄소 등지에는 단층의 벽돌건물로 된 공동 목욕탕이 들어섰는데, 일본인 직원용과 중국인 傭人用으로 구분되었다. 만주국 시기에는 각 채탄소마다 목욕탕이 하나씩 설치되었다.[74]

1907~1909년 시기 무순시의 주거실태를 보면, 만철 무순탄광의 사택은 직급별 및 민족별로 주거시설 및 도시 환경상의 심각한 차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직급이 높은 일본인 사원과 고원, 그리고 중국인 소두의 사택은 현대식의 2층 벽돌건물로서 건평이 넓어 다수의 가족과 동거할 수 있었으며, 거주환경이 월등한 신시가지에 위치해 있었다. 반면에 직급이 낮고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진 임시직의 중국인 노동자용 사택은 단층의 허름한 목조건물이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탄갱 부근의 구시가지에 밀집해 있었다.

탄광의 채탄부는 갱내의 나쁜 가스, 산소결핍, 열기, 습도, 석탄가루, 먼지 등을 흡입하면 살았기 때문에 호흡기 및 내장 질환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갱내의 發火所 및 노천굴에서의 자연발화에 대비한 소화설비, 選炭場에서의 炭塵 흡입방지 기구 착용, 채탄부의 광산모자, 地下足袋, 脚絆 착용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각 채탄소에 보안검사소를 설치하고 전임 係員을 배치해 재해연구, 조사, 안전설비 개선 등에 힘썼다. 숙사나 작업현장에도 재해방지를 위한 선전 포스타를 부착하기도 했다.[75]

그러한 안전조치에서도 불구하고 갱내의 채탄작업 자체가 매우 위험했다. 특히 坑內堀의 채탄과정에서는 落盤이나 측벽 붕괴 등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했다. 가령 1907~1908년 시기 무순탄광에서는 106~256명이 부상을 당했다.[76] 1907~1942년까지 사망했거나 부상당한 중국인 광부는 각각 6,567명, 23만 2,358명에 달했다. 1937~1943년까지 중국인 常傭方과 常傭夫의 사망자수는 각각 2,227명, 1만 7,984명이었다. 이 기간 상용방의 사망률은 0.9%에서 1.9%로, 상용부의 그것

73)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3·151-210쪽.
74) 南滿州鉄道株式会社北滿経済調査所 編, 앞의 보고서, 249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151-198·210·274-277쪽.
75) 南滿州鉄道株式会社北滿経済調査所 編, 앞의 보고서, 235-240쪽.
76)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300쪽.

www.nl.go.kr

은 2.0%에서 12.2%로 급증하고 있었다.[77] 1943년 1년간 갱내굴에서 낙반이나 측벽 붕괴사고 건수가 2,412회 발생해 2,483명이 다쳤고 139명이 사망했다.[78] 갱내의 채탄작업에 대부분 투입된 중국인 노동자들의 사망비율은, 주로 고위직이나 기술직·행정직에 종사한 일본인보다 33.8배나 많았다.[79]

게다가 무순탄광 당국의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탄광운영과 식민지적 수탈정책도 중국인 채탄부들의 대규모 사상을 초래했다. 실례로 1916년 4월 15일 무순탄광 내 大山 갱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탄광당국에서는 다른 갱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명구조 없이 곧바로 토사로 탄갱을 막아 화재를 진압했다. 이 사고로 중국인 채탄부 150명이 갱내에서 사망했다.[80] 1917년 1월 11일에도 대산 갱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마찬가지로 인명구조 없이 갱 입구를 봉쇄해 900명의 중국인 채탄부가 갱내에서 사망했다.[81] 탄광노동자들은 장시간의 고강도 작업량, 사상자의 속출, 열악한 처우 및 작업환경 등으로 갱내 작업에 대한 두려움이나 기피심리가 강했으며 일부는 탄광에서 도주하기도 했다.[82] 특히 중일전쟁 후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북의 일본 점령군이 탄광 등지에 강제로 투입한 '特殊工人'(反日·通匪혐의자, 포로 등) 중에서 도망한 사람들이 많았다.[83]

광공업 도시의 특성상 무순시의 대기 질은 매우 열악했다. 특히 탄광이나 공장지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거하고 있어서 전염병의 배양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염병이나 유행병이 창궐했다. 게다가 중국인 탄광노동자들은 위생관념이 떨어

77) 1937~1942년은『撫順炭礦統計季報』第1號(1943.5), 68쪽; 1943년은 滿鐵撫順炭礦編, 1943,『昭和十八年度撫順炭礦統計年報』第一編(特秘), 79쪽.

78) 滿鐵撫順炭礦 編, 1943,『昭和十八年度撫順炭礦統計年報』第二編(特秘), 184-187쪽.

79)『撫順炭礦統計年報』昭和17年度(第一編), 撫順鑛務局檔案館 所藏, 276·393쪽. 무순탄광의『殉職芳名簿』에 의하면 1907~1941년까지 7,168명이었다(丁万强, 2008,「滿鐵時期撫順煤鑛安全事故傷亡狀況之考察」,『黑龍江史志』第19號, 10쪽에서 재인용).

80) 虞和寅,『撫順煤鑛報告』(礦業報告第二册), 中國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 所藏, 211-212쪽(丁万强, 위의 글, 9쪽에서 재인용).

81)『撫順炭礦統計年報』(昭和17年度 第一編), 撫順廣務局檔案館 所藏, 391-393쪽;『老工人隋行山 1959年回忆材料』, 抚顺档案馆 所藏(丁万强, 위의 글, 9쪽에서 재인용).

82) 解學詩, 2011,『滿鐵檔案資料滙編』, 北京: 社會科學文献出版社, 595·655쪽.

83)「關東軍參謀長吉本貞一宛奉天防衛委員會委員長越生虎之助 特殊工人入滿ニ關スレ件建議」(1941.8.16.). 상세한 내용은 松村高夫·解學詩·江田憲治 編著, 앞의 책, 320·307-324쪽 참조.

www.kci.go.kr

졌고 고픈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하다 보니 음식물에 파리나 먼지가 앉아도 무덤덤하게 먹곤 했다. 그 때문에 만철 무순지방사무소에서는 보건위생 문제나 위생관념 보급, 水源池로의 오물유입 방지, 시가지 청소 등에 신경을 썼다. 가령 사택마다 區長을 뽑아 위생청결을 감독케 하고 매주 1회씩 社宅係가 감시자로서 순시를 했고 수시로 청결검사를 했다. 이때 청결검사 결과가 양호한 곳에는 표창장 및 금일봉을 수여했고 불결한 곳에는 벌금을 부과했다.[84] 1935년 3월 설립된 무순보건소에서는 보건 전문가를 초빙해 시가지, 상하수도 시설, 주택, 학교, 철도, 공장, 광산 등지의 보건위생 제고에 힘을 쏟았으며, 탄광 소속 사원과 그 가족의 결핵 및 전염병 예방, 위생학 검사 등을 실시했다. 또한 무순시에서는 경찰, 병원, 거주자 및 관계자들로 위생위원회를 조직해 공중위생 문제를 심의했다.[85] 무순시에서는 근대적인 보건위생 시설이 갖추어지고 기본적인 위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V. 무순탄광의 처우와 민족관계

그렇다면 무순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한 무순탄광 종사자들의 삶과 직결된 임금실태는 어떠했을까? 1907~1908년까지 조사된 무순탄광 노동자의 시기별 연평균소득 현황을 보면, 용인은 일본인이 중국인보다 1.46~2.19배, 상역부는 일본인이 중국인보다 1.36~1.74배, 임시부는 일본인이 중국인보다 1.3~2.21배 많았다. 이들의 평균日給 현황을 보면, 일본인 용인이 중국인 용인보다 1.92~2.41배 많았고, 일본인 상역부가 중국인 상역부보다 1.38~1.8배 많았다.[86]

---

84) 蘇崇民, 1990,『滿鐵史』, 北京: 中華書局, 189·635쪽; 王明月, 2018,「僞滿時期撫順煤礦中國工人生存狀態研究」,『大慶師範學院學報』第38卷 第4期, 133쪽; 于淑娟·張曉風, 2019,「滿鐵撫順煤礦"招募"中國勞工手段揭秘」,『蘭台世界』第7期, 169쪽; 南滿州鉄道株式会社北満経済調査所 編, 앞의 보고서, 239-241쪽.

85)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625-627쪽.

86)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99쪽.

www.nsi.go.kr

만주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무순탄광 노동자의 민족별 월평균 임금의 차이는 달라지지 않았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1934~1943년 시기 雇員 이상의 중국인 월평균 임금은 일본인의 20.6%~50%에 불과했다. 다만 1934년에 일본인의 21.6%에 불과했던 중국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9년 후인 1943년에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격차가 축소되고 있었다. 같은 시기 중국인 常傭方과 常傭夫의 경우는 각각 일본인의 13.8%~29.5%, 15.1%~30.0%에 불과했지만, 9년 사이에 일본인과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14% 전후에서 약 30% 정도로 줄어들고 있었다. 이것은 전시경제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인 노동력의 극심한 부족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1934~1943년 시기 전시경제의 진전에 따라 일본인과 중국인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약간 축소되는 경향이 드러났지만, 중·일 양 민족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셈이다. 직급별 월평균 임금에서도 고원 이상 직급의 중국인 노동자가 상용방 및 상용부보다 42%~70%정도 더 많이 받고 있었고 이들 직급 사이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었다.

[표 2] 무순탄광 종사원의 직급별 민족별 월평균 임금(1934~1943)

구분	일본인	중국인			일본인	중국인		
		雇員이상	常傭方	常傭夫		雇員이상	常傭方	常傭夫
1934	95.99	20.71	13.22	14.54	100.0	21.6	13.8	15.1
1935	99.94	20.58	13.76	15.88	100.0	20.6	13.8	15.9
1936	98.32	22.83	15.35	16.49	100.0	23.2	15.6	16.8
1937	97.89	26.26	17.13	17.58	100.0	26.8	17.5	18.0
1938	98.38	31.77	21.02	20.26	100.0	32.3	21.4	20.6
1939	105.02	40.87	24.73	24.88	100.0	38.9	23.5	23.7
1940	110.07	46.86	29.49	31.71	100.0	42.6	26.8	28.8
1941	118.79	57.50	34.43	35.73	100.0	48.4	29.0	30.1
1942	134.50	67.00	41.60	39.00	100.0	49.8	30.9	29.0
1943	151.69	75.91	44.72	45.48	100.0	50.0	29.5	30.0

〈출전〉 滿鐵撫順炭礦 編, 1943, 『昭和十八年度撫順炭礦統計年報』 第一編(特秘), 18쪽.

만주국 초기인 1935~1936년 시기 무순탄광 종사자의 민족별 직급별 인적구성을 살펴보면([표 3] 참조), 1936년 3월 일본인은 전체 종업원 3만 8,088명 가운데

www.kci.go.kr

10.9%인 4,133명이었고, 중국인은 89.1%인 3만 3,955명이었다. 1935년과 1936년 최고직급인 月俸을 받는 社員과 囑託은 각각 634명, 707명으로 전체 종업원의 1.9%에 불과했으며, 전원이 일본인이었다. 상대적으로 직급이 높은 고원 역시 중국인은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일본인이 독차지했으며, 그 비율은 1.8%였다. 같은 시기 傭員은 일본인이 각각 1,977명, 2,348명이었고 중국인은 각각 2,388명, 2,363명이었다. 1936년도 準傭員, 임시용원, 견습공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반면에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苦力, 즉 상용방과 상용부는 모두 중국인이었다. 비슷한 시기 무순탄광에 고용된 중국인 노동자들의 일평균 고용원수는 常傭方(1일 평균)이 1만 238명, 常傭夫가 1만 6,930명, 請負工이 4,971명, 供給工이 1,932명이었다.[87]

[표 3] 만주국 초기 무순탄광 종업원의 민족별 직급별 분포현황

구분		社員囑託	雇員	傭員	準傭員	임시용원	견습공	常傭方	常傭夫	합계
1935.3	일본인	634	632	1,977	358	-	-	-	-	
	중국인	-	2	2,388	-	-	-	10,238	16,930	
	합계	634	634	4,365	358	-	-	10,238	16,930	
1936.3	일본인	707	677	2,348	246	71	84	-	-	4,133
	중국인	-	2	2,363	-	-	-	3,573	19,017	33,955
	합계	707 (1.9)	679 (1.8)	4,711 (12.4)	246 (0.6)	71 (0.2)	84 (0.2)	3,573 (9.4)	19,017 (49.9)	38,088 (100.0)

〈출전〉 1935년 3월 통계는 앞의 책, 『炭礦讀本(昭和十一年度版)』, 582쪽에서; 1936년 3월 통계는 앞의 책, 『撫順商工要覽』, 48쪽에서 인용.

또한 [표 3]이 보여주듯이, 1935년 무순탄광의 전체 노동자 2만 8,112명 가운데 용원은 8.4%인 2,351명, 상용부는 53.3%인 1만 4,973명, 상용방은 38%인 1만 691명, 용원은 8.4%인 2,351명이었고, 파두는 0.3%인 97명이었다. 1938년도에는 전체 노동자 3만 2,875명 가운데 용원은 4.8%인 1,575명, 상용방은 25.8%인 8,484명, 상용부는 69.4%인 2만 2,816명이었다. 용원은 일본인이 45.3%, 중국인이 54.7%였다.

87) 撫順實業協會 編, 앞의 책, 43쪽;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582쪽.

www.kci.go.kr

1942년도 무순탄광의 전체 종사원 9만 1,365명 가운데 일본인은 10.6%인 9,682명이었고 중국인은 89.4%인 8만 1,683명이었다. 職員은 1,983명이었는데 1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일본인이었다. 準職員의 경우 일본인이 전체 2,013명 가운데 93.3%인 1,879명을 차지한데 비해 중국인은 6.7%인 134명에 불과했다. 고원(9,314명)의 경우 일본인이 5,734명(61.6%), 중국인은 3,580명(38.4%)이었다.[88] 결국 일본인이 전체 종사자의 2%가량인 사원·촉탁·직원 직급을 독차지한 채 탄광 지도부를 형성한 반면에, 중국인은 절대다수가 상용방과 상용부, 즉 쿠리(苦力)로서 탄광의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중·일 양 민족의 탄광 직급구성이나 역할을 볼 때, '일본인=고위직, 정규직, 편안하고 안정적인 직급 부류', '중국인=하위직, 임시직, 불안정하고 고위험의 힘든 직급 부류'라는 차별적 민족위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만주국 시기 무순탄광에서는 직급이 높고 처우가 좋은 사원과 고원은 사실상 일본인들로 구성되었다. 직업이 불안정하고 임시직의 일급 노동자인 상용방과 상용부는 사실상 중국인들로만 구성되었다. 무순탄광의 직급별 분포나 노동강도에서 일본인과 중국인의 민족적 위상은 확연하게 달랐으며, 직제에서도 민족차별이 만연해 있었다.

무순탄광 노동자들의 수당에서도 직급별 민족별 차별이 만연했다. 야근수당의 경우, 월봉 70원 이상인 자에게는 40전, 70원 미만인 자 및 고원에게는 35전, 일본인 용원에게는 25전, 중국인 용원에게는 일본인의 60%인 15전이 주어졌다. 주거수당의 경우, 직원에게는 15전, 고원에게는 10전, 용원에게는 7전 5리가 주어졌다. 탄광 갱내작업에 따른 위험, 비위생, 근로상의 고통 등을 고려해 갱내 근무자에게는 入坑수당이 지급되었다. 즉 月俸사원에게는 10전, 일본인 고원에게는 8전, 일본인 甲種雇員에게는 6전, 중국인 갑종고원에게는 1전 5리가 주어졌다. 작업수당의 경우도 월봉사원에게는 30전, 일본인 고원에게는 25전, 일본인 갑종용원에게는 20전, 중국인 갑종용원에게는 일본인의 1/4인 5전이 지급되었다.[89]

88) 『撫順炭礦統計年報』 昭和17年度 第一編, 8쪽; 『滿鐵統計年報』 昭和20年 3月, 第38卷 第12號, 9쪽.
89)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앞의 책, 394-395쪽.

www.kci.go.kr

1938년 만주국 광산노동자의 민족별 임금격차를 보면, 일본인 노동자는 평균 3원 4전이었는데 비해, 중국인 노동자는 그것의 31.9%인 97전에 불과했다. 그래서 중국인 광산노동자들은 그저 일본인만을 위해 일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며, 심지어 일본인이 자신들을 착취한다는 불만과 시기심도 가지고 있었다.[90]

1907년 3월부터 1909년 5월까지 무순의 각 병원에 새로 입원한 환자 및 외래환자 현황[91]을 살펴보면, 월급제의 정규직 사원의 입원 및 외래환자 수가 기타, 즉 日給의 비정규직 종사원을 포함한 일반인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 이것은 초창기 무순탄광 내의 병원이 기본적으로 만철사원의 치료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입원 및 외래환자의 민족별 현황을 보면, 일본인이 중국인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만철사원 이외의 기타 사람들의 경우, 중국인 입원환자는 겨우 6.7%에 불과했지만, 일본인 입원 환자는 93.3%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新외래 환자의 경우도 중국인은 0.3%였는데 비해 일본인은 99.7%였다. 1908년 10월부터 1909년 3월까지 입원 경력자들은 醫院長 1명, 醫長 2명, 醫員 2명, 調劑員 1명, 사무원 1명, 事務員補 1명, 간호부 6명, 간호부견습 5명, 사무견습 3명, 기타 傭人 11명이었는데,[92] 이들은 사실상 일본인 만철사원들이었다. 병원 이용자나 운영자는 사실상 일본인이었던 셈이다.

당시 일본인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중국인의 경우, 입원비나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병원입원 및 진료혜택의 수혜자들이 대부분 일본인이었다는 사실은, 극소수의 중국인 사원을 제외한 중국인 傭人이나 고력, 일반 시민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더욱이 1908년 4월부터 1909년 3월까지 1년간 무순탄광에서 사역한 중국인 臨時苦力의 延인원 수가 43만 6,490명[93]에 달할 정도로 무순시 거주자들의 절대 다수가 중국인이었음

90) 南満州鉄道株式会社北満経済調査所 編, 앞의 보고서, 110-111쪽.
91)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78-279쪽.
92)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82쪽.
93)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앞의 책, 244-245쪽.

www.kci.go.kr

을 고려해본다면, 인구 구조상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인 거주자들은 사실상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셈이다. 무순시에서는 사택수준, 주거환경, 의료방면에서 중·일 간의 민족차별이 만연해 있었던 것이다.

당시 무순탄광 중국인 광부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전술한 왕추이잉의『礦坑』작품 속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

> "그들은 모두 이 마을에 살면서 광산에서 탄을 캐는 광부들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지저분하면서도 미련스러운 얼굴에 낡아빠진 옷을 입고 있고, 게다가 머리에는 버드나무로 엮어서 마치 광주리와 같은 모자를 쓰고 있어서 더욱 얼뜨기처럼 보인다. 아직 이른 때여서 그런지 모두들 아직까지 잠이 덜 깬 듯 무거운 다리를 끌고 멍하니 아침 작업을 위해 걸어간다. (중략) 태양이 막 떠오르려 할 때 광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녀자와 아이들인데, 그들은 광부들과 비슷하게 남루한 옷을 걸쳤고, 지저분하고 검은 얼굴 그대로 등에는 대충 엮은 광주리를 지고 있다. 그들은 광산에 올라가 석탄 찌꺼기를 주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매일같이 頁巖더미에 가서 석탄 조각을 몇 개라도 주워가지고 오고 싶어 한다."[94]

무순에 살면서 무순탄광의 정경을 묘사한 한설야도 그의 소설작품을 통해 '구멍이 송송 뚫려 찬바람이 스며드는 옷을 입고 있는, 그래서 불쌍한 목으로는 만주에서도 우리가 제일 첫째'라고 생각하는 조선인, '마차'를 타고 다니며, 부와 지식의 상징인 '팔자수염'을 하고 몸에는 '터럭조끼'를 입고 있으며, '이 바닥의 공기를 몹시 싫어하여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탄광의 절대적 상층 계급인 일본인, 그리고 '겨울 돈벌이로 농촌에서 게바라드는 支那 '쿠리(苦力)'는 그래도 웬만하면 째진 양피 조각이나마 걸치고 다니는' 중국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탄광도시 무순에서의 민족과 계급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95]

---

94) 王秋螢, 1996,『礦坑』, 張毓茂 主編,『東北現代文學大系』, 瀋陽: 瀋陽出版社, 383-384쪽.
95) 김창호, 2016,「푸순(撫順)탄광과 한중소설」,『만주연구』제22집, 만주학회, 2016, 24쪽.

www.kci.go.kr

Ⅵ. 결론

대규모 석탄 매장량을 지녔던 무순은 군사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전략 거점이었다. 러시아군은 1900년 의화단사건을 빌미로 무순광구를 점령했다. 러시아는 정치적 압력과 군사적 점령 등 제국주의적 침탈 방식으로 무순광구 및 탄갱 지역의 중국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철도부설 용지로 활용했다. 그리고 근대적인 채굴기계와 탄갱 운영체계를 도입해 석탄을 채굴한 뒤 군사용으로 활용했다. 일본 역시 러일전쟁 승리를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무순광구의 운영권을 넘겨받은 뒤, 청조와 불평등조약을 통해 헐값으로 무순광구를 강탈하다시피 했다. 무순탄광은 일본의 전리품이자 일본 제국주의의 대륙 침략정책의 산물이기도 했다.

무순은 러시아에 의해 초보적인 근대도시의 모습을 띠어갔으며, 일본의 점령과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의 광구 운영권 승계를 계기로 근대적인 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특히 만철부속지의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제방시설, 철도, 사통팔달의 도로·교량 등이 부설되었다. 또한 발전소, 급수시설, 가스 공장 등이 건설되면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이 보급되었고 전염병 예방과 위생사업도 실시되었다. 근대적인 학교, 병원, 공원, 공연장·탄광구락부 등의 위락시설, 여관, 은행, 우편국, 전신전화국, 도서관, 이발소, 공동묘지, 화장장 등 근대문명 시설들도 들어서기 시작했다.

무순시의 근간인 무순탄광에도 효율적인 광구 운영체계와 근대적인 채굴·운송 기계들이 도입되고 각종 공장과 부대시설들이 설립되었다. 새로운 탄갱들이 개착되고 채굴기술이 향상되면서 무순탄광의 채탄량도 급증했으며, 발전소 건설로 무순시내 및 주변 도시로의 송전도 이루어졌다. 게다가 기계·製油·제철·석탄액화·화약·화학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무순시는 무순탄광을 모태로 만주의 최대 중공업 도시로 변모해갔다. 무순탄광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노동력 수요급증으로 수많은 중국인들이 무순으로 유입되면서 무순시의 인구는 급증했고 만철 사원용 사택, 탄광 노동자용 기숙사, 중국인 주거시설, 상점 등이 들어서 근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www.kci.go.kr

그런데 중국인들은 대부분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시가지에 거주한 반면에, 일본인들은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각종 근대문명 시설이 갖추어진 신시가지에 거주했다. 무순탄광은 근대적인 시설로 채워졌지만 노무체계나 작업환경은 낙후되었고 민족차별이 심했다. 직업이 안정되고 급여가 높은 고위직은 일본인이 독차지했다. 반면에 중국인 노동자 대다수는 임금이 적고 직업이 불안정한 임시직이었거나 작업과정이 위험한 채탄노동자로 일했다. 무순탄광의 안전시설은 낙후되어 중국인 채탄부의 사망사고가 빈발했고 부상자도 속출했다. 동일한 직급이라고 해도 중국인의 임금은 일본인보다 훨씬 적었다. 게다가 각종 수당이나 처우에서도 일본인과 중국인 사이에는 차별이 심했다.[96] 근대적인 병원시설이 갖추어졌지만 입원 및 외래환자 대다수는 일본인이었다. 중국인들은 근대적인 의료혜택에서 소외되었다.

무순시는 러시아 및 일본의 군사적 점령과 탄광의 개발을 계기로 근대적인 광업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갔지만, 제국주의 열강의 半식민지로 전락되어 도시 내적인 삶의 질에서는 중·일 민족 간의 차별이 제도화되었고 각종 민족모순이 내재되었다. 무순시는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적 점령을 계기로 근대적인 도시기반을 갖추면서 '개척성'과 '근대성'을 띠었다. 그렇지만 도시의 주거환경, 민족별 처우, 탄광 내의 작업환경, 노무체계 등에서는 민족차별이 만연해 있는 등 제국주의 침탈이 초래한 '식민성'을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무순시는 '개척성'·'근대성'·'식민성'이 중첩된 근대 광업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수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즉 무순시는 '식민지적 근대화'와 '식민지적 수탈'이 중첩된 '일그러진 근대 광업도시'의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

96) 윤휘탁, 2022, 「'근대성'과 '식민성'의 중첩적 표상-만주국 무순탄광의 노무체계와 민족관계」, 『만주연구』 제33집, 만주학회, 89-118쪽.

www.kci.go.kr

참고문헌

1. 1차 자료

「撫順鑛物局 所藏 日文檔案 8-181 第5號」
關東長官官房文書課 編, 1927,『關東廳國勢調査結果表』, 大連: 滿洲日日新聞社
関東長官官房調査課 編, 1933,『關東廳國勢調査 昭和5年結果表 第2卷』, 関東長官官房調査課
蜷川 新, 1929,『亜細亜に生きるの途』, 東京: 日本書院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坑 編, 1909,『撫順炭坑』, 大連: 明治42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1945.03,『滿鐵統計年報』第38卷 第12號
南滿洲鐵道株式會社 編, 1937,『炭礦讀本(昭和十一年度版)』(滿鐵史料叢書 1), 大連: 南滿洲鐵道株式會社 撫順炭礦
南滿洲鐵道株式會社臨時經濟調査委員會 編, 1928,『滿鐵各箇所使役華工調査報告(二)』(資料第2編), 大連: 南滿洲鉄道株式會社
南滿洲鐵道株式會社臨時經濟調査委員會 編, 1928,『滿鐵各箇所使役華工調査報告(一)』(資料第2編), 大連: 南滿洲鉄道株式會社
南滿州鉄道株式会社北滿経済調査所 編, 1940,『滿洲鉱山労働概況調査報告』(滿鉄調査研究資料 第14編), 大連: 南滿州鉄道株式會社
南滿洲鉄道株式会社庶務部調査課 編, 1927,『南滿洲鉄道株式会社二十年略史』, 大連: 南滿洲鉄道株式會社
南滿洲鉄道株式會社庶務部調査課 編, 1927,『民國十六年の滿洲出稼者』(滿鉄調査資料 第70編), 大連: 南滿洲鉄道株式會社
南滿洲鉄道株式會社庶務部調査課 編, 1929,『民國十七年の滿洲出稼者』(滿鉄調査資料 第100編), 大連: 南滿洲鉄道株式會社
南滿洲鉄道株式会社庶務部調査課 編, 1928,『本邦の工業と滿洲の原料(二)』(パンフレット 第52号), 大連: 南滿洲鉄道株式會社
滿鐵撫順炭礦 編, 1942,『昭和十七年度撫順炭礦統計年報』第一編(特秘)
滿鐵撫順炭礦 編, 1943,『昭和十八年度撫順炭礦統計年報』第一編(特秘)
滿鉄本社能率係 編, 1929,『撫順炭鉱、東郷本坑出炭作業ニ就テノ研究報告』(能率調査資料 第4輯), 大連: 滿鉄本社
撫順實業協會 編, 1936,『撫順商工要覽』, 大連: 撫順實業協會
奉天交通株式会社 編, 1939,『炭都撫順案内』, 奉天: 奉天交通
社會教育會 編, 1931,『滿蒙讀本』, 東京: 社會教育會
岩根正雄 編, 1939,『炭都撫順』, 東京: 月刊滿洲社
帝国在郷軍人会本部 編, 1937,『滿洲概観』, 東京: 帝国在郷軍人会本部

www.kci.go.kr

2. 연구서

古廄忠夫, 1987,「日本軍占領地域の'清鄉'工作と抗戰」, 池田 誠 編著,『抗日戰爭と中國民衆ー中國ナショナリズムと民主主義』, 京都: 法律文化社
松村高夫·解學詩·江田憲治 編著, 2002,『滿鐵勞働史の硏究』,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윤휘탁, 2002,『中日戰爭과 中國革命; 戰爭과 革命의 二重奏: '戰爭革命'』, 일조각

3. 논문

Zhu Xiaoqi, 2011.04,「1932年に於ける日本の石炭と撫順炭の紛争に関する再検討ー日本政府の紛争調停と政策動機を中心に」,『アジア太平洋研究科論集』第21號
江夏 由樹, 1989.12,「旧奉天省撫順の有力者張家について」,『一橋論叢』第102卷 第6號
高綱 博文, 1986.03,「「滿州」における炭礦労務管理体制: 撫順炭礦労務管理成立史(近代中国の経済と社会,共同研究)」,『日本大学経済学部経済科学研究所紀要』第10號
김양, 2008,「윤희순의사의 중국 환인현 무순지역 항일독립운동 근거지 재조명」,『의암학연구』제6권, 의암학회
김창호, 2016,「푸순(撫順)탄광과 한중소설」,『만주연구』제22집, 만주학회
大野 太幹, 2018.11,「撫順炭鉱の労務管理制度:「滿洲国」の経済遺産のその後」,『アジア遊学』第225號
德永 博文, 2004.03,「中国撫順炭鉱の竪坑櫓」,『エネルギー史硏究』第19號
李国平, 1996.03,「中国撫順炭田開発に伴う工業化」,『日本地理学会予稿集』第49號
李世宇, 2007,「僞滿時期滿鐵撫順煤鑛中國工人狀況之考察」,『許昌學院學報』2007年 第1期
李雨桐, 2018,「近代日本操控東北煤炭業的過程解析」,『吉林廣播電視大學學報』2018年 第5期(總第 197期)
孟琪, 2014,『滿鐵在撫順地區的經營活動硏究』,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木越 義則, 2009.04,「滿鉄撫順炭礦の労働管理制度と小把頭ー一九〇一~一九四〇年」,『日本史硏究』第560號
三木 理史, 2015.03,「1920年代南滿州鉄道における撫順炭輸送」,『アジア経済』第56卷 第1號
上羽 修, 1996.09,「撫順炭鉱中国人労働者の大量死--万人坑否定論への反論」,『戰争責任硏究』第13號
徐 雄彬·董 光哲, 2014.08,「滿鉄の中国人従業員に対する労務政策·労務管理に関する一考察: 時期別にみた中国人従業員の労働·生活状況の分析を中心として」,『経営哲学』第11卷 第2號
蘇崇民·老田 裕美 [訳], 1998.05,「撫順炭鉱の把頭制度」,『寄せ場』第11號
孫慧伶, 2021,「20世紀初撫順産業工人的對日鬪爭」,『中共滿洲省委史硏究』2021年 1月號

www.kci.go.kr

松村 高夫, 2000.07,「15年戦争期における撫順炭鉱の労働史(上)」,『三田学会雑誌』第93卷 第2號
楊帆, 2012,「日本對東邊道地區經濟資源掠奪研究(1905-1945)」, 東北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余子道, 1982,「日僞在淪陷區的"淸鄉"活動」,『近代史研究』1982年 第2期
王明月, 2018,「僞滿時期撫順煤礦中國工人生存狀態研究」,『大慶師範學院學報』2018年 第38號(04)
王秋螢, 1996,『礦坑』, 張毓茂 主編,『東北現代文學大系』, 瀋陽: 瀋陽出版社, 383-384쪽
于淑娟·張曉風, 2019,「滿鐵撫順煤礦"招募"中國勞工手段揭秘」,『蘭台世界』2019年 第7期
于淑娟·张晓风, 2019,「滿鐵撫順煤礦"招募"中國勞工手段揭秘」,『蘭台世界』2019年 第7期
越沢 明, 1986.11,「撫順都市計画(1905~1945年)-上-ある植民都市の計画と建設」,『地域開発』第266號
_____, 1986.12,「撫順都市計画(1905~1945年)-下-ある植民都市の計画と建設」,『地域開発』第267號
庾 炳富, 2001.03,「満鉄撫順炭鉱における「労働者供給請負制度」: 一九一二~一九三〇年までを中心として」,『エネルギー史研究』第16號
_____, 2001.04,「満鉄撫順炭鉱における「一歩作業頭制度」: 1931年から1936年までを中心として」,『比較社会文化研究』第9號
_____, 2000,「満鉄撫順炭鉱の把頭制度—1907年から1911年までを中心として」,『比較社会文化研究』第8號
유수정, 2009,「두 개의 「합숙소의 밤」과 '만주'」,『만주연구』제9집, 만주학회
윤휘탁, 2022,「'근대성'과 '식민성'의 중첩적 표상—만주국 무순탄광의 노무체계와 민족관계」,『만주연구』제33집, 만주학회
伊藤 一彦, 1999.05,「戦時下撫順炭鉱の中国人労働者 (特集 漂流する時代)—(帝国の歴史と現代)」,『寄せ場』第12號
丁万强, 2008,「滿鐵時期撫順煤鑛安全事故傷亡狀況之考察」,『黑龍江史志』2008年 第19號
井上 友和, 2007.03,「満鉄撫順炭鉱の「会社-工人」関係から中国の「近代化」を考える」,『現代中国事情』第12號

투고일: 2022년 08월 17일 심사완료일: 2022년 08월 19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17일

www.kci.go.kr

■ Abstract ■

Overlapping Metaphors in Manchuria: Between 'Pioneering,' 'Modernizing,' and 'Colonizing' Fushun (撫順) Mining and Industrial City

Yoon, Hwy-tak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After militarily occupying the Fushun Mine, Russia and Japan introduced an efficient mine operating system and modern mining and transport machines that increased coal production. As the demand for labor surged, many people flocked to the Fushun Coal Mine, which spurred development by creating residential and entertainment facilities, factories, and shops. Most notably, the South Manchuria Railway Co., Ltd. took over the Fushun Coal Mine operations and built embankment facilities, railways, roads, and bridg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utilities and facilities such as schools, hospitals, and concert halls. These infrastructural changes quickly transformed Fushun City into a modern city that continued to develop after Russia and Japan occupied the area. In this way, the colonizing of Fushun easily slips into the metaphorical rhetoric of the city's modernization as a product paved through Russia and Japan's so-call 'pioneering' and 'modernizing' influences. Yet, beneath the product lies a colonizing reality that remained firmly in place in the lived experiences of the people. Even with such developments, the Chinese remained isolated in poor residential areas, while the Japanese enjoyed the lavish, more modernized facilities in the city. The stark contrast in living conditions between these groups contributed to ethnic discrimination, which consequently reduced Chinese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limited them to low-paying, temporary, and dangerous jobs. Deaths and injuries of Chinese coal miners were frequent at Fushun Coal Mine, which was made worse even with a modern health care system since it marginalized the Chinese as a second-class ethnic group. As such, while Fushun City is often described as the product of Russia and Japan's 'pioneering' and 'modernizing' efforts, such descriptions often overlap with the realities of subjugation that reproduce colonial forms of oppression and exploitation. In other

www.kci.go.kr

words, Fushun is the product of 'colonial modernization.'

Key words: Fushun (撫順), Fushun Coal Mine, pioneering, modernization, colonial, Russia, Japan, ethnic discrimination, South Manchuria Railway Co., Ltd.

www.kci.go.kr